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생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및 ‘어머니 노릇’에 대한 인식과 의미

홍석준·성정현*

I. 서론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해 주었던 가사노동, 주부의 역할 등에 관한 쟁점들이¹⁾ 2000년대 이후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한 어머니 역할, 즉 ‘어머니 노릇’에 관한 관심으로 대치되거나 혹은 가사노동도 자녀교육을 통해 관찰되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중 일상유지 노동은 간소화되고 어머니의 자녀학업 지원 노동과 가계 재정관리노동은 증대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중 특히 자녀교육 지원은 ‘어머니 노릇’의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급기야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 영어 구사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영어권 국가로의 자녀유학을 포함한 조기유학 열풍이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 어머니들의 ‘어머니노릇’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를 새롭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박혜경 2009; 조선닷컴

* 목포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부교수·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 여성학과 가정학 등에서 오랜 관심을 받아온 가사노동은 그 가치와 시간, 가사노동 분담, 가사노동이 상품화, 여성의 가사노동 만족도, 정보화 등의 측면에서 폭넓게 연구되었다(박혜경 2009). 하지만, 최근에는 자녀교육 지원에 중점을 둔 어머니 경험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5월 2일자 <http://edu.chosun.com>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가속화되는 전지구화(globalization)의 과정 속에서 자녀를 위해 나은 교육 현실을 찾아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례가 예전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다. 한국 사회의 영어에 대한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관심의 증대로 유학의 규모뿐만 아니라 성격 자체도 종전과는 뚜렷하게 다른 양상과 의미를 띠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학 중에서도, 특히 조기유학의 경우에 더욱 특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 수만 하더라도, 2003년도에는 조기유학을 떠난 초·중·고등학생이 약 10,498명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6,446명, 그리고 2005년도에는 20,400명으로 3년 동안 약 2배가 증가하였다(김홍원 2005).

조기유학 대상 국가도 1997년 이전까지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구미국가들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1997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이 각광을 받다가, 2000년대 초반 이후 최근까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이 가장 선호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해져가는 중이다.²⁾ 최근 들어 신종플루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조기유학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누적 집계된 조기유학자는 15만 4천 345명에 이르며(조선일보 2010년 5월 2일자 기사 참조), 특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조기유학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조기유학 대상국가가 다양해지고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가정이 증가한 사실은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동기도 예전과는 달

2) 싱가포르에서의 한국 중산층 및 저소득층 기러기 가족 자녀들의 공립학교 생활에 대한 연구로는 Kim(2010)이 있다. 한국 기러기 가족 자녀들의 싱가포르에서의 학교 생활 및 한국인 기러기 가족의 이주 상황, 가족관계 등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Kim(2010)을 참조할 것.

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선은 조기유학 대상국가에 따라 경제적 수준, 교육체계 및 교육비 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조기유학 동기, 경험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조기유학을 떠난 경우 어머니들의 경우, 고학력의 중산층 전업주부, 유학 경험 혹은 친지의 체류, 한국에서 강남 거주 등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조기유학 가정의 경우는 고졸 학력인 상당수의 어머니들, 취업주부, 그리고 유학 혹은 해외경험의 부재, 수도권 혹은 신도시나 지방 대도시 거주 등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어 이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기유학 대상국가, 경제적 수준, 학벌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체류하는 어머니와 자녀,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교육 책임 등과 같은 구조와 역할 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홍석준·성정현 2009).

그렇다면 이들은 왜 조기유학을 선택하며, 조기유학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일단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녀의 조기유학에 부여하는 의미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도 한국의 교육현실과 자녀교육에 대한 나름의 철학, 그리고 자녀교육과 연관된 모성 또는 ‘어머니 노트’에 대한 인식과 평가와도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녀의 학업을 위해 일찍이 유학을 떠나기로 결정한 부모들은 그들이 실현하지 못한 욕구를 재현하는 것에서부터 배우자 혹은 원가족(family-of-origin)과의 관계에서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것, 부모 자신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 영어 배우기에

도전하는 것, 자녀의 조기유학 과정을 통해 자신이나 가족 전체의 은퇴이민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 등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다양한 욕망과 기대를 포함한 갖가지 이유로 조기유학을 결심하는 것으로 보인다(홍석준·성정현 2009).

하지만 이러한 여러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 중 하나는 자녀 교육에 관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에 대한 평가이다. 부모의 역할과 관심이 점점 자녀교육으로 집중되고, 그 성공 여부 또한 자녀의 학업을 통해 가늠되는 상황이 어찌면 이들의 조기유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실제 말레이시아로의 조기유학을 결정하는 한국 어머니들의 자녀교육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들이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모역할, 특히 ‘어머니노릇’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자녀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조기유학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녀 교육이 한국 어머니들의 사회적 욕망의 재현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고 특히 고학력의 주부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 내재된 숨은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학술적 작업은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들의 자녀교육과 ‘어머니노릇’의 현주소, 그리고 중산층 여성들과 한국 사회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함께 말레이시아로 조기유학을 떠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된 배경, 조기유학중 자녀교육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 및 ‘어머니 노릇’에 대한 인식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조기유학 현황

2004년도까지 점차 증가하던 초·중·고학생의 유학 현상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급증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006년도에 정점을 찍은 조기유학율은 2007년도 경제위기 이후 매년 2만 여 명씩 감소하다가 2009년도에는 약 9만 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강남구청이 2009년도 4월에 밝힌 ‘2008학년도 초등학교 유학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와 고환율로 인해 불안감이 가장 고조되었던 2008년도 하반기(9월1일~2월28일)에도 ‘어린이 나홀로 유학’이나 ‘기러기 가족’ 같은 순수 유학생 수는 834명으로 집계되어 상반기(3월1일~8월31)에 떠난 416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09년 4월 29일자 <http://hankooki.com>, 기사 참조).

<표 1> 연도별·학교급별 출국 유학생 현황

(단위 : 명)

연도 \ 학교급	초	중	고	합계
2001	2,107	3,171	2,666	7,944
2002	3,464	3,301	3,367	10,132
2003	4,052	3,674	2,772	10,498
2004	6,276	5,568	4,602	16,446
2005	8,148	6,670	5,582	20,400
2006	13,814	9,246	6,451	31,517
2007	12,341	9,201	6,126	29,675
2008	12,531	8,888	5,930	27,349
2009	8,369	5,723	4,026	18,118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 초·중등교육 유학생 현황』
 파견동행과 해외이주로 인한 해외출국생은 제외됨. 고등학교에는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가 포함됨. 연도는 학년도를 의미함.

조기유학의 성격과 조기유학 국가도 달라지고 있다. 2000년대 이전의, 소위 ‘도피성 유학’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세칭 ‘도약성 유학’으로 그 성격이 변하고 있으며, 선택되는 국가도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집중되었다가,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중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관광을 위한 대상지로서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지닌 나라’로 인식되는 경향이 생겨나면서, 심지어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과 같은 나라로 조기유학을 떠났던 가정들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조기유학대상지를 옮기는 추세도 생겨나고 있다. 2005년도만 하더라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조기유학을 떠난 청소년은 약 11.4% 수준에 머물렀지만(<표 2>, <표 3> 참조), 2008년도에는 약 19.5%로 증가하였다. 즉, 전통적인 조기유학대상지였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아시아 유학 선호 현상은 두드러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 2005학년도 국가별 출국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 나라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중국	캐나다
인원(명)	35,144	12,171	812	176	293	70	6,340	4,426
백분율(%)	100.0	34.6	2.3	0.5	0.8	0.2	18.0	12.6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영국	중동	동남아	남미	미확인	기타
1,674	1,413	159	504	170	4,011	356	1,478	1,091
4.8	4.0	0.5	1.4	0.5	11.4	1.0	4.2	3.1

※ 상기 통계는 파견동행, 해외이주가 포함된 것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6. 『2005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3> 2008학년도 국가별 출국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중국	캐나다	호주
인원(명)	40,961	13,156	852	139	261	61	5,415	5,172	2,046
백분율(%)	100.0	32.1	2.1	0.3	0.6	0.2	13.2	12.6	5.0
구 분	뉴질랜드	러시아	영국	중동	동남아	남미	미확인	기타	
인원(명)	1,636	216	535	339	7,973	387	1,265	1,508	
백분율(%)	4.0	0.5	1.3	0.8	19.5	0.9	3.1	3.7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8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동남아시아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조기유학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주로 강남지역에 집중되었던 조기유학 가정들이 이제는 분당과 용인, 광명, 일산 등 신도시와 수도권 지역 거주자로까지 확대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부산과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의 어머니들도 이러한 조기유학 열풍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경제위기로 환율이 고공행진을 할 당시 일부 가정들이 조기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조기유학을 떠나는 가정들의 동기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고학력, 중산층의 전업주부들이 주도하여 조기유학을 선택했던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자녀의 학업이라는 동기 이외에 부모의 퇴직 이후 사업이나 일자리를 모색하는 방안으로서 선택되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기유학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아버지들이 적극적인 권유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홍석준·성정현 2009). 여기에는 물론 북미지역보다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아

시아 지역이라는 특징, 그리고 경제적 문제,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에 대한 심리적 편안함, 그리고 여행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조기유학이 증가하면서 취업을 중단하고 조기유학을 결정한 어머니들 혹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까지도 손자들의 조기유학에 참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취업상태였던 어머니들이 자녀와 함께 조기유학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기존의 경제활동을 중단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취업상태의 기혼여성들까지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직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한국의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어머니이자 취업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자녀교육의 애로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동기와 인식으로 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들을 통해 한국에서의 자녀교육의 심각성과 현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글로벌 시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국 어머니들의 자녀교육과 어머니 노릇

최근 들어 영어몰입교육과 같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여론 때문에 사교육행위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어머니 노릇’과 관련된 스트레스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어머니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어머니가 됨으로 인해 성취할 수 있는 열망,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기회비용으로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어려움, 그리고 어머니가 된 이후부터 겪어야 하는 ‘완전한 아이’에 대한 부당한 기대와 죄책감에 이르기까지 더 포괄적이고 복잡해지고 있다. 생물학적 모성과 이성적 모성이 구분되어 가면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어머니 되기, 아이를 낳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양심과 책임의 문제, 그리고 아이에 대한 ‘최고, 최선의 후원’에 대한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로 변해가고 있다. 부모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점점 더 두려운 과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천선영 2003).

이렇게 어머니가 되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어머니 노릇’이다.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비율 또한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M자 곡선을 이루는 것은 학력위주의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올인’하지 않고서는 ‘어머니 노릇’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사회적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어머니들은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녀교육의 최종점인 대학입시는 온 가족이 매달려야 하는 가족전체의 절실한 목표가 되어 버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의 입시를 앞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적과 진학문제’, ‘수험생 자녀의 뒷바라지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감’, ‘자녀의 성적 부진에 대한 부모로써의 자책감’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들은 입시를 앞둔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학교에 같이 가고, 돌아오면 같이 먹고, 옆에 있고 학원에 데려다 주고, 또 선생님들 시간을 조절하면서 자녀와 물리적, 심리적으로 한 공간에 존재하면서 대부분의 일상을 함께 경험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기대와 욕구를 줄여야 하는 현실을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노력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을 탓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이정화 2004).

하지만 모든 어머니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공부,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모, 특히 어머니의 태도는 사실 자신의 삶의 경험과 의식, 사회적 성취를 시도했으나 좌절하고 포기한

자로서의 성취를 통한 대리만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추병식 1999). 실제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한 오지수 등(2009)의 연구에서도 사교육비는 부모의 학력과 월평균 소득, 그리고 거주지역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에 대한 경험의 후회와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교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에 관한 담론을 연구한 이민경(2007)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능력으로 자녀교육의 전면적 흐름을 주도하는 계층으로서 자녀교육 활동에 집중하는 중산층 중에 상당수는 내면의 학력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고, 자신들의 교육경험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그에 대한 주관적 해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분이동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던 자신들 세대의 근대적 교육경험과 성취결과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기대와 지원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금과 같이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더 이상 개인의 힘만으로 학업성취를 이룰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부모의 힘과 능력,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따라서 온 가족이 자녀교육에 몰두하고, 이것은 아내와 며느리 역할을 넘어서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일종의 학력 콤플렉스와 이를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 특히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기대와 부담이 과도한 사교육 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교육열을 단순히 자녀의 학업성취를 통한 미래의 경쟁력 확보 차원만이 아니라 부모, 특히 어머니의 개인적 사회적 입장과 욕망 속에서 탐구되어야 할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산층 부모의 사회적 상승이동과 현재 상태의 유지에 대한 내면화된 열망, 학부모의 특권의식과 욕망 등이 이런 행동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하다(김신주 1995). 즉, 학부모의 교육경험,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사회현실에 대한 자각, 자녀교육 및 부모역할

에 대한 인식과 감정 등이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오지수 외 2009). 이들은 공교육 불신과 그로 인한 사교육 강화, 그리고 비용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한편,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때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이지연 1994). 결국 이런 현상은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자녀교육과 관련된 일에 소모하는 삶의 패턴을 구축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녀교육과 관련된 ‘어머니 노트’는 어떠하였는가? 60-70년대에 학령기 자녀를 둔 당시 30대와 40대 어머니들은 대가족 며느리 역할의 부담에서 벗어나 핵가족 안에서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로, 이들의 자식교육에 대한 열성은 ‘치맛바람’으로 표현되곤 했다. 80년대에는 자녀교육, 입시교육이 이전 세대보다 소수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이 중 고등교육을 경험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한 일부 여성들도 자녀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직장 일을 양립했기 때문에 결국 이중 삼중의 노동을 감당하는 슈퍼우먼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들의 자녀교육은 공교육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한 두 과목 정도의 사교육 선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어머니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사교육 강화, 더 나아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로의 양성이라는 새로운 과업에 직면했으며, 이제는 대입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자녀교육을 위한 ‘어머니 노트’으로 확장되고 있다(Park 2007; Park and Abelman 2004). 이들은 사회적, 정책적 변화를 재빠르게 파악하여 자녀의 학습관련 커리어를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다른 가족들도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역할을 망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가 흐를수록 알뜰 살림을 우선시 했던 어머니들의

역할이 자녀교육을 최우선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고, 자녀의 교육적, 사회적 성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곧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윤택림 2001; 김명혜 2005). 한국 어머니들이 이와 같이 자녀의 사교육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 나윤경 등(2007)은 이것이 그들의 모성수행과정의 일환이며, 그 가운데서 ‘자신만의 길 찾기’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즉 희생과 극성, ‘프로’, ‘미씨’로 설명되어 온 모성의 실천 속에서 어머니들은 자신만의 길 찾기를 기획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자녀교육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런 자녀교육을 통한 모성의 역할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집에서 노는 엄마’, ‘대세를 소비하고 학습하는 엄마’, ‘전통적인 가사노동에 능숙한 아내보다는 자녀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통해 아내 역할까지 내조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엄마’,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든 것을 계산하는 엄마’가 좋은 어머니라는, 소위 ‘교육 매니저로서의 어머니(educational manager mothers)’(Park 2007)라는 담론이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관련 일에 몰두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는 교육 매니저이자 남편의 욕망을 대리 실현하는 사람이고 아울러 시댁에는 가문을 빛내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고등교육을 받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도 자녀교육은 자녀와 남편, 시댁으로부터 자신을 필요한 존재로 인식시킬 수 있는 전략적이고 절묘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자녀교육을 통해 유형, 무형의 욕망을 투사하는 이기적 타당성의 실제적 재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의 부족한 교육경험에 대해 자신의 교육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일종의 ‘한’과 같은 감정 및 자기 학력에 대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으로서의 의미부여, 자녀교육에 대한 관리 및 기획, 그리고 세계화라는 현상들이 맞물리는 교육현실에서 한국의 어머니들이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외화 유출 및 가정의 불안정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국가교육시스템을 이탈하는 것은 근대국가시스템의 핵심인 국민교육을 통한 국가성의 함양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와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조은 2004). 뿐만 아니라 조기유학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준비 없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의 부적응과 당혹감, 진로탐색 및 개발에서의 어려움 등 부정적인 측면이 실재하기 때문이다(홍석준·성정현 2009).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조기유학 현상을 학부모의 교육열이 반영된 자녀에 대한 교육활동지원현상의 하나로서, 교육소비자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틀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천세영·박소화 2007). 조기유학을 본질적으로 학부모의 교육열이 반영된 교육활동지원현상이자 자식중심의 도구적 가족주의가 세계화라는 구조적 변동에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조은 2004). 이와 같은 해석은 자녀교육과 관련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최근의 인식, 즉, 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교육 매니저 혹은 교육 기획자로 나서기 시작한 한국 어머니들은 왜 조기유학을 감행하면서까지 자녀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가? 그들이 인식하는 ‘어머니 역할’ 또는 ‘어머니 노릇하기’라는 담론 속에는 어떠한 열망 혹은 욕망이 숨겨져 있는가? 신자유주의의 경쟁체제 하에서 이와 같은 ‘교육 매니저로서의 어머니들’라는 담론을 형성, 유포, 소비하는 한국 어머니들의 욕망 속에

는 자기 교육 과정과 배경에 대한, 일종의 ‘한풀이’,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대리만족’, ‘남편과 시대 등 가족 관계 내에서의 자기 위상 정립’, ‘자신의 상징적 자본의 확충 및 인정받기’,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 제공’, ‘전통적인 가족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탈출’ 등의 다양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으며 (Park 2007), 이를 통해 한국 어머니들이 자녀의 조기유학 과정에서 “자녀를 위한 조기유학은 ‘희생’과 ‘고생’을 담보하면서라도 감행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시도”라는 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실제 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 어머니들의 이러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욕구에 담긴 의미를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살펴보는 이론적, 실천적 작업은 충분히 학술적인 측면에서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어머니들의 욕망의 구조와 그 실천은 한국 어머니들의 자녀교육과 ‘어머니 노릇’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미, 유럽 지역이 아닌, 동남아시아, 특히 말레이시아로 조기유학을 떠난 한국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및 ‘어머니 노릇’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에 대한 기술과 분석을 통해 위의 연구 주제에 대한 사회과학적으로 유의미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동아시아 조기유학이 급증하는 조기유학 대상국가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에서 조기유학중인 학생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기유학 결정 배경 및 자녀교육과 ‘어머니 노릇’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1월 20일부터 2월 12일

까지 약 20일, 그리고 2010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조기유학중인 청소년의 어머니 7명, 할머니 1명과 각각 1시간 30분 혹은 2시간 정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조기유학중인 청소년의 어머니들에게 연구내용을 알리고 면접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다음실제 말레이시아에 가서 각각의 면접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면접을 한 후, 다시 또 다른 면접자를 소개받는 형식의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 method)을 활용했다.

심층면접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직업, 학력, 거주지 등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질문과 조기유학의 결정 동기 및 배경, 자녀교육 경험과 인식, 조기유학과 자녀교육 간의 관계, 그리고 좋은 ‘어머니 노트’의 정의, 자녀의 조기유학의 장, 단점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개방적인 질문들을 활용하였다.

면접 자료는 현장노트와 녹음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중 전자는 현장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특히 심층면접 대상자의 태도와 심층면접자의 직관 등을 메모하는데 유용하며, 후자는 대상자의 응답을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보존해줌으로써 조사자의 회상이나 요약 기록에 비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집된 자료는 축어하여, 기술과 분석 및 해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기술 및 분석과정에서 의미 이해가 어렵거나 다른 사례와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2010년 7월 27일부터 2010년 8월 2일에 재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을 때 확인하였다. 자료는 면접 대상자별로 2회 이상 정독하였으며, 면접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조기유학 결정이유, 조기유학중 어머니의 역할과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층면접 대상자는 총 8명으로 10개월 이상 자녀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거주한 어머니들이다. 먼저 A는 부산에서 10년 이상 미용일에 종사하였으며, 남편의 권유로 미용업을 정리하고 말레이시아 유학을 선택했다. B는 10년 이상 아동학습지 관련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두 자녀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약 2년 7개월째 거주중이다. A와 B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집을 구매한 상태이다. C는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의 권유로 홍콩으로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말레이시아로 변경하여 이곳에 체류한지 1년이 되었다. 홍콩 조기유학을 결정할 당시 한국에서는 결혼 이후 줄곧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직장에 다녔으며, 남편의 개인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중국어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홍콩으로 조기유학을 떠났지만, 경제위기로 환율이 너무 올라 말레이시아로 옮겼다. 여기서도 일을 하고 학원비에도 보탬이 되기 위해 한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D는 한국에서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가 딸이 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어 조기유학을 선택했다. E는 조기유학중인 손자손녀 6명을 돌보고 있는 할머니이다. 딸들과 동남아 여행 중,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싱가포르에 약 4년 머물다가 말레이시아로 옮겨 1년째 머물고 있다. 딸과 사위, 며느리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고학력인 조부모가 손자들을 돌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주할 때에는 조모 혼자 말레이시아를 8번 방문하여 국제학교 인근의 한인 식당 주인을 만나거나 학교를 돌아보고 결정할 정도로 철저함과 열의를 갖고

있다.

F는 아들의 학업문제로 여러 해 동안 고민하다가 아들이 고 2에 접어들 때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을 결정했다. 현재 2살 차이가 나는 아들과 딸이 한 학년에 다니고 있지만, 별 문제는 없는 상태이고 고학년인 만큼 적응도 잘하고 있다. G는 쌍둥이인 아들 2명과 9살 딸을 데리고 말레이시아에 거주한지 3년 4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업주부로 지냈으며, G가 거주한 곳은 비평준화지역이어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즈음하여 조기유학을 결정했다. 작년에

<표 4> 심층면접 대상자

대상자	본인연령 (남편연령)	거주 상태	유학기간	한국 거주지	권유자	직업(학력)	
						남편	본인
A	38세 (44세)	12살, 11살 아들 2명	10개월	부산	남편	공무원(전문대졸)	미용(고졸)
B	39세 (40세)	12살 딸 11살 아들	2년 7개월	중동	남편	공사기관 (대졸)	아동학습 교재기관 (대졸)
C	41세 (49세)	중3 딸 중 2 아들	1년	광진구	남편	개인사업 (대졸)	직장(전문 대졸)
D	37세 (41세)	9세 딸	10개월	노원구	남편	회사(대졸)	컴퓨터 강사(대졸)
E	71세 (72세)	손주 6명	싱가포르 3년, 말레이시 아 2년 4개월	마산	딸, 사위	퇴직(대졸)	전업주부 (대졸)
F	45세 (51세)	19세 아들 17세 딸	1년	용인	남편	항공회사 (대졸)	전업주부 (전문대졸)
G	42세 (45세)	19세 아들 2명 9세 딸	3년 4개월	광명	남편	사업(대졸)	전업주부 (고졸)
H	40세 (42세)	8세 딸 1명	1년 6개월	분당	함께	변호사 (대졸)	전업주부 (대졸)

집을 구매하였으나 세를 놓고 학원이 밀집해있는 한인 타운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온 아들 중 큰 아들은 올해 칼리지(college)에 입학했고, 둘째 아들은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H는 8세 된 딸과 약 1년 6개월째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이다. 남편의 직업상 여러 나라를 경험했고, 그중 말레이시아가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나라로 조기 유학을 결정했다.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지만, 매일 학교에 나가 청소하고 학교 직원과 관계를 형성하여 학교에서 알려질 정도로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에 교장으로부터 면담 후 바로 입학 허가를 받아냈으며, 현재도 모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이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A와 E, 그리고 G를 제외한 부부들이 대체로 40대부터 50대 초반에 이르는 연령대에 속하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배우자는 대부분 사무직에 종사하며 대졸의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 거주지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지방대도시로 다양한 특징이 있다. 이중 서울은 강남과 목동 등 학군이나 입시학원으로 유명한 지역이 아닌 강북 지역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자의 학력과 거주지 이외에 특징적인 것은 면접자중 4명이 조기유학 이전에 한국에서 장기간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남편의 권유로 조기유학을 결정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이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를 경험했던 사람들로, 이들이 조기유학을 결정하는 데에는 일가족 양립 및 자녀교육에서의 애로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심층면접자중 4명은 이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와 D의 경우는 조기유학 결정 시점에 바로 집을 구매하였고, B와 G는 일정기간 말레이시아에 거

주하다가 집을 구매한 경우이다. 이들이 조기유학을 결정할 당시 한국에서 말레이시아의 주거지에 대한 홍보가 많았던 것과, 한국과는 달리 매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유학기간에 대한 계획 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 자녀의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된 이유

(1) 자녀의 학업과 미래

1) 자녀를 위한 영어 학습 기회 제공

동남아시아로의 조기유학에 관한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조기유학생이 아버지이나 기러기 아빠인 남편들의 역할의 변화이다. 아내가 자녀의 조기유학을 적극적으로 원하여 마치 못해 한국에 남아 자녀의 유학비를 송금하는 소극적인 이미지의 아버지 모습과는 달리 최근에는 아버지들이 적극적 권유자로 등장하고 있다(홍석준·성정현 2009).³⁾ 먼저 A를 보면, 남편이 직장에서 어떤 이들이 조기유학을 가는지, 누가 은퇴이민을 가는지, 어느 곳이 좋은지 등을 자꾸 언급하여 ‘가야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F도 아들의 성적문제로 수년을 고민하던 중, 남편이 직장동료들로부터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 아이들과 함께 가

3) 참고로 이두휴(2008)는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한국에 남아 자녀와 가족의 교육비, 생활비를 책임지는 기러기 아빠들 9명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의 교육적 희망과 갈등, 경험을 연구하였다. 기러기 아빠가 등장한 표면적인 이유는 외국어 능력의 향상, 한국의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의 탈출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무한경쟁의 도입과 영어교육의 중요성 부각, 치열한 입시경쟁과 기대대학에 입학하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미국대학 졸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 등이 조기유학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명분으로 기러기 아빠들도 자녀의 미래라는 명분 때문에 이별을 하고 적어도 한국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기유학을 떠나보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보의 부족과 경제적 문제, 가족 간 유대의 약화와 공허감, 그리고 불확실성의 증대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며, 심지어는 선택에 대한 회의감까지 경험하기도 한다.

라고 하여 말레이시아에 왔다. C와 D, G는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영어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고 자녀에게 영어학습의 기회를 열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기러기 어머니가 된 경우이다.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로의 조기유학 결정은 비단 어머니들의 주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들이 경험한 영어로 인한 불편함을 대물림하지 않고 싶은 아버지들이 열망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이 “누구의 누가 가고, 그래 나가면 좋다더라, 말레이시아가 은퇴이민으로도 좋고, 영어 배우기에도 좋다더라”고 해서 나왔어요. 본인이야 자식 조기유학 보내니까 자존심도 살고 또 실제로 자랑거리가 되고, 남들처럼 나도 조기유학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도 좋고 하니까 나가라고 한 거죠. 남들에게 자랑도 하고, 실제 말레이시아가 살기에도 좋고, 영어권 나라니까 영어 배우기에도 좋다고 하면서 일단 나가보라고 했어요. 애들 아빠는 꿈이 커요. 애들 공부나 숙제는 하나도 안 봐주면서도(A).

남편이 외국인과 사업을 많이 하는데 영어가 딸리니까 애들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해서 나오게 됐어요. 아빠가 애들한테, 영어가 안 되니까 갑갑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고 설득했어요(C).

큰애가 자꾸 공부가 밀리니까 남편이 주변에서 한국보다 자유롭게 공부하는 게 낫다는 얘기 듣고, 영어 하나라도 잘하면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직장 후배 부인이 말레이시아를 좋게 얘기하고 해서 이리 오게 되었어요(F).

A, C, F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들은 자녀의 조기유학을 더 이상 외화유출로 인해 부끄러운 사안이 아니라 조기유학 정도는 보낼 수 있는 아버지이자 남편이라는 존재감을 내세울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회사의 직장 동료나 이웃 가정에서 자녀의

조기유학에 관한 정보를 자주 접하면서 본인도 조기유학을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아버지이나 가장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나도 보낼 수 있고 나도 실제로 보냈다”라는 일종의 허위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동기와 기대로 아내에게 암암리에 남들처럼 자녀교육의 매니저로 나서줄 것을 원하고, 이것은 어머니들이 갖고 있던 열망과 어우러지면서 실제 자녀와의 분거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2) 스펙 관리의 일환으로서의 조기유학 경험 제공

자녀의 조기유학을 결정하는 시기는 주로 자녀의 학령기 진입 시기와 대학과 연계되기 시작하는 중학교 2학년 때이다. 전자는 보통 7, 8세에 조기유학을 결정하여 길게는 한국초등학교 3, 4학년의 시기까지 해외에 머문다. 한국의 초등교육에서 학업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보통 4, 5학년 때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영어 과목을 다른 학생들보다 앞서 놓고, 어느 정도 한국공부를 함께 병행해주면 귀국 이후에 국제중학교나 혹은 외국인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3년 특례 요건이나 국제학교의 개교시기를 미리 알아보고 조기유학을 선택한 경우도 있다.

여기는 자유롭게 공부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 애한테 날개를 달아주려고 온 거예요. 초등학교는 국제학교에서 다니게 하는 게 좋은 경험이 되고, 아이 프로필을 무시하지 못하니까, 어린 시절을 말레이시아에서 보낸 것은 스펙이고, 한국에서 우월감을 갖게 하죠. 한국가면 지금도 애는 외국에서 온 애가 되요(H).

이와 같이 저학년부터 자녀의 스펙 관리에 관심을 갖고 그 일환으로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것은 저학년부터 스펙을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향후 학업 및 직업 선택에서서 유리한 상황에

놓이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또래보다 자신감과 우월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자녀 학업관리는 장단기적으로, 그리고 심리사회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되고 있다.

3) 패자부활전을 위한 조기유학: 영어와 중국어 습득, 그리고 말레이시아

저학년과 달리, 고학년 중에는 중학교까지의 성적을 평가해보고 목표했던 대학교에 진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기유학을 결정한 경우도 있다. 부모들은 학력 차별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지방이나 수도권 대학 보다는 외국대학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까지 능통하게 된다면 그 프리미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부는 안 해도 되지만, 언어는 중국어까지 하면 굶어죽지는 않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소위 ‘햇바리대학’ (명문대학이 아닌 낮은 수준의 대학을 비하하는 말-필자 주)에 가는 거 보다 여기 와서 외국 대학 보내는 게 나으니까 나왔는데(A).

여기 나온 애들 중에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9학년 때 엄마들이 많이 나와도 10, 11학년 때 아주 잘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고학년 엄마들은 처음 와서 1, 2년은 많이 울어요.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자꾸 유급이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가서 검정고시 보는 애들 많아요. 엄마들 많이 울어요(G).

얼마 전에 유학원에서 지방 국립대 특례입학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좋겠지만, 애들 군대문제가 나빠지고 비용도 너무 비싸서 이번 설명회

가 아주 인기였어요. 저학년(primary) 엄마들은 우습게 여기지만 10학년, 11학년 엄마들은 본인들의 아이를 인정하니까 한국의 저기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한국대학으로 U-turn하는 조기유학생들)(G).

하지만 이들 중에는 G의 경우와 같이, 자녀의 학업문제로 인한 불안감과 교육비 걱정, 한국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대학진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현실 등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남학생을 둔 부모들은 자신들 세대의 연고주의 경험, 그리고 외국대학으로 보낼 때 발생하는 학비 문제 때문에 다시 한국 대학에 입학하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2) 한국 가족과 교육에 대한 문화적 압력으로부터의 탈출

1) ‘종전의 가족과 친족관계’로부터 해방

말레이시아로 조기유학을 온 기러기 어머니들 중에는 자녀의 학업 문제 이외에 본인의 애로점 때문에 하나의 출구로서 조기유학을 선택한 경우도 적지 않다. 자녀의 학업문제로 조기유학을 고민하는 연령대는 대부분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이다. 이 시기는 대부분 가족이 자녀의 학업문제에 몰두하고 관리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도 커지는 때이다. 이와 함께 조부모세대가 점점 자녀세대의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형적인 샌드위치 세대로서 그 역할과 책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여성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다 감당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시기의 남성들은 생산성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인 반면, 여성들은 대부분 가족문제를 지향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통적인 관계의 특성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조부모 세대와 고학력에 풍요로움과 적은 자녀수로 태어난 30대 후반의 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감내하는데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대부분 아이들 앞세운 목적이 시댁이에요. 10명중 5명은 시댁과 등졌다 하고, 안 만난다고는 못하니까 애 공부삼아 명분 내세워 오는 거죠. 적당히 영어 시키고, 적당히 시댁 안 만나고, 적당히 여유 즐기고 하는 게 목적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시댁이 없는 데면 아프리카든 어디는 살아 하나까(A)

결혼해서 시댁과 함께 살았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장남이라 바라라는 것도 많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가 봐야 하고, 시어머니가 송곳 같아서 몸은 하나인데 해야 할 일은 많고, 요즘은 안부전화만 해도 되고 누가 와도 얼굴 안 비쳐도 되고 하는 점이 좋아요. 예전에는 못 가보면 힘들고 가면 내시간이 없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에서 해방감을 느껴요(B).

한국은 지금 많이 바뀐데, 여기는 안 그렇죠. 한국은 경조사비가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고 누가 이사해도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는 정도라 생활비도 단순해지고, 무대비용도 세이브가 되고(D).

이와 같이 면접대상자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족관계 이외의 사회적 관계도 복잡하고 부담스럽다고 평가했다. 시부모 문제를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많은 경조사를 치루는 점, 체면치레 등이 “복잡함”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2) ‘일하는 어머니’의 죄책감으로부터의 탈피

본 연구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왔던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분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업주부만이 조기유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과는 다른 사실이다. 이

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조기유학을 선택한 데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 일을 병행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맞벌이를 하지만, 남편이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매우 낮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면, 요구는 훌벌이 가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이 분거의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아빠는 한참 일할 나이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남자랍시고 직장생활 한다고 변화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일하고 가정일 하고 다 힘드니까 외국으로 나가겠다, 나도 공부하겠다며 싸우고 그랬다. 물론 남편은 처음에는 말리고 그랬지만(B).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지만, 학업을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하였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로서 전업주부 만큼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자녀의 낮은 학업성적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과 연계된 것이다. 특히 본인 자녀와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학습지회사에 다닌 B는 직장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지도하지만, 집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충분히 지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경험하면서 유학을 결정했다. 특히 자녀가 한 명일 때는 감당이 되는데 두 명 이상이 되거나 어린 자녀가 부적응 행동을 보일 때에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대한 실질적인 애로점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지원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기유학의 현실을 단지 교육의 문제로만 보는데서 나아가 가족정책의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는 엄마들이 일하기 싫어 오는 거 같아요. 반은 시댁이지

만, 40%는 일 안하려고 들어오죠. 피아노강사, 영어선생 등 한국에서 혼자 벌어서는 안 되고, 또 일을 하면 애들을 잘 못 봐주고, 그래서 일하고 싶지 않아 오는 엄마들, 미안하고 하니까(A).

직장 엄마들이 항상 마음속에 짐이 있어요. 남의 자식 가르치느라 내 자식 못 가르친다는 짐이 크죠. 엄마가 뭐하는 건가 하는 죄책감이 들고, 울인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불만이 커졌어요. 귀교 후 애가 사라지고 친구 집에서 놀다 오고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죠(B).

이와 같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보다 더 많은 시간의 노동을 하면서도 가족과 자녀에게 미안해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자녀교육과 관련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의 영향이 크다. 과거처럼,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세대가 아니라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조부모의 경제력과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아버지의 목인이 중요하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인 현 상황에서 정보력이 취약한 어머니로서는 무엇을 하고 있든 가족, 자녀 앞에서 늘 미안하고 특히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낮을 때에는 죄책감마저 든다, 또 자녀양육에 전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자녀의 학업 성취가 낮으면 사회적 비난도 이어진다. 좋은 어머니에 대한 문화적 기대와 기준이 어머니들, 특히 일하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항상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이재경 2004 참고).

3) 자녀의 조기유학을 통해 ‘공부에 대한 한(恨)’ 해소

차별에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는 성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차별의 전형적인 세대인 부모들은 여전히 그 인식과 기억을 가지고 있다. 실제 그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해온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만큼은 대물림하지 않고 자녀에게 ‘울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자녀의 조기유학 속에는 부모의 공부에 대한 한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명문대, 높은 학력을 선호하는 사회에서 면접대상자들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학벌, 특히 영어로 인해 애를 먹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학벌위주의 사회 풍토가 바뀔 것 같지 않고 부모세대만큼 살기도 힘들어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동남아시아 조기유학은 그야말로 자녀를 해외에서 공부시키는 부모라는 평가와 영어로 말할 줄 아는 자녀라는 공함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기회이다.

엄마들이 한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를 잘했다는데, 나도 잘했는데, 언 학교인지도 모르고 다 잘했다고들 하니깐,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물으면, 너는 어디냐 하니깐 묻기도 그렇고 영문과라는데 발음이 거지고, 미대나왔는데 고지서도 못 보냐고 하고, 나 같은 고졸은 입도 뺏긔 못해요(A).

한국에서는 못해도 스카이(sky: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이니셜을 따서 부르는 약어) 대학을 생각해요. 아빠가 스카이가 아니라서 더 그런 거 같아요. 학력을 무시한다, 무시한다 해도 막상 살다보면 그게 아니니까(D).

그렇다면 자녀교육을 통해 부모들은 어떻게 한을 풀 수 있는가?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자녀가 잘하는 것이고 학력도 자녀의 것일 뿐 사실 어머니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학업을 통해 부모의 한을 푸는 방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부모, 특히 어머니와 자녀를 일체로 인식하는 우리사회의 가족문화에서 자녀의 학업은 공부 잘하는 누구누구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과 지위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3.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기대 변화와 ‘어머니 노릇’의 실재

면접대상자들의 규정하는 좋은 어머니는 과거의 헌신적인 어머니 모습과는 달랐다. 본인들이 자랄 때 옆에서 지켜줬던 전업주부였던 어머니의 지위와 역할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직업이자 매니저,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실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면에서는 취업주부보다 전업주부가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과 그 성과의 면에서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으며, 어머니 자신에게도 일과 가정의 양립 노동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이라는 부적절한 심리적 부담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어렸을 때 전업주부는 순종하는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업주부는 직업이고 매니저죠. 자기 아이를 더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마들이 투션(tuition)에 관한 정보들을 잘 알려주지 않으니까(스스로 알아봐야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전업주부로 사는 게 좋죠(D).

이와 같이 현시대에 요구되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실제 어머니들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부 잘하는 아이의 엄마’, ‘못하는 아이의 엄마’, 그리고 ‘고학년 엄마’, ‘저학년 엄마’ 등과 같이 자녀의 학업정도와 학년에 따라 구분된 새로운 이름과 지위를 갖게 된다. 이것은 어머니 자신의 과거에 얼마나 학업이 뛰어났든, 혹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는지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녀의 학업으로만 성취되는 새로운 지위이다. 이것을 통해 어머니들은 또래 자녀의 어머니들 사이에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정보를 얻어야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게 된다.

엄마들은 ‘모 아니면 도’라고 해요. 잘하는 애 엄마, 못하는 애
엄마, 엄마들이 같이 놓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룹이
씩 나뉘었어요(A).

이와 같은 어머니 노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실제 조기유학중
자녀의 학업을 위해 수행하는 어머니의 역할에서 구체화된다. 즉 자
녀를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많은
것을 뒤로하고 떠난 조기유학이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제
반 측면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돌입하는 것이다.

(1) 자녀의 학업 시간 관리

조기유학중에 어머니들의 역할은 가사일과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
수집으로 집약된다. 한국에서처럼 만날 사람이 많지 않고, 그 만남
도 정보 수집을 위한 만남으로 목적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한 매니저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매니저
역할은 시간의 활용계획에서부터 만나는 사람, 그리고 정보수집의
종류 등에 이르기까지 치밀하다.

먼저 시간 관리와 그 내용을 보면, 면접 참여자들은 대부분 5시
30분경에 기상하여 자녀의 도시락과 아침을 준비하고, 자녀가 등교
한 이후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에 관한 정보와 소식을 접한
다. 때로 오전 9시경에는 한국 친구나 가족과 통화하면서 그들의 일
상을 점검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12시 경에는 자녀와 같은 또래나
같은 학년의 학생을 둔 동료 어머니들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하거나 정보 교환이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수다
를 떨기 위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다. 한편, 쇼핑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일은 자녀의 귀가 시간인 오후 2시

이전에 대부분 마무리된다. 그리고 2시 이후부터는 다시 자녀가 해야 할 공부에 맞춰 시간을 관리하고 학업 내용을 관리하는 매니저의 역할로 되돌아간다.

하루 5:30-6:00 사이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등교시키고,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하고, 아이들 스케줄하고 간식 체크하고 리딩 랩(reading lab)에서 픽업해서 집에 데려오는 걸로 하루가 끝나죠(B).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애 깨워서 아침먹이고, 7시에 나가서 애 학교 보내요. 들어와서 청소하고 엄마들 다니는 영어 학원 갔다가 애가 1시 20분에 끝나니까 학교 가서 데려와요. 그리고 애 피아노 학원, 바이올린, 영어 튜션하고, 5, 6시에 집에 들에 도착하면 밥 먹이고 8시에서 9시 사이에 재워요(D).

말레이시아는 더운 날씨 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일과도 이른 시간에 시작된다. 학생들은 보통 6시 30분경에 등교하여 2시를 전후로 하교한다. 따라서 한국 어머니들은 5시 30분을 전후로 기상하여 아침식사와 학교 등교 준비를 돕는다. 사실 면접 참여자들이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일상의 일은 식사, 도시락, 집안청소, 빨래 등과 같은 전형적인 가사노동이지만, 이 일들은 오로지 자녀만을 위해 수행되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어머니나 자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참여자들의 경우는 외국에 머무는 동안 이와 같은 가사노동을 통해 자녀들에게 느꼈던 미안함을 해소하고, 스스로도 어머니 역할을 다한다는 자족감을 느낀다.

아이들 수학은 일주일에 두 시간씩 튜션하고, 영어와 중국어는 각각 한 시간씩, 그리고 스포츠 댄스하고 골프를 하죠. 한국에는 방학 때 1번 나가서 수학은 한 학년 것을 선행하고 와요. 개인교수로 한 달 반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청도로 갈 생각이예요. 이는

엄마가 뉴질랜드 산골에서 공부하다 싱가포르로 왔는데, 다시 중국어 때문에 청도로 갔어요. 우리도 이번에는 청도로 가볼 계획이에요(E).

(2) 자녀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망) 관리

자녀교육에 있어 어머니의 정보력은 자녀의 학업능력 만큼이나 중요하다. 정보력은 실제 자녀의 학업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존재와 능력, 정체감을 확인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심층면접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원천은 크게 인터넷, 사람, 그리고 교회이다.

정보를 얻는 게 거의 엄마들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엄마들 정보력이 보통이 아니에요(F).

애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엄마의 정보력과 아이에 대한 관심이죠(G).

교회를 안다니면 차단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면 거의 엄마들끼리 대학 순위보고, 대학 다녀본 엄마들한테 주로정보 듣고, 튜션 연계해 달라 하고, 시험 언제 보는지 알아보고 하죠(F).

여기 오자마자 초기에는 칼잡자고, 아침에 학원 다녔어요. 학원 원장님들한테 도움 받고, 엄마들을 통해 도움 받고, 8개월 동안 어떻게든 통로는 하나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러다 요즘엔 교회에 나가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교회는 하나의 의사소통 통로로 활용되는 것 같아요. 외로우니까, 교회행사나 모임도 많고, 친해지면 애들 생일파티가 엄마들 모임도 되고 하니까(B).

‘능력 있는 엄마=정보력=공부 잘하는 아이의 엄마’라는 공식에 맞추어 정보는 주로 학년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어머니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자녀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해 고국을 떠나 온 이들인 만큼 정보를 얻기란 그리 쉽지 않다. 교육비가 싸고 질 좋은 교육을 하는 튜션 선생님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좋은 학원 구하는 것, 그리고 한국 교육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말레이시아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어머니들의 경우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정보, 시험, 그리고 알림장을 파악하는 일 하나하나가 만만하지 않다. 특히 알림장의 경우 아이가 제대로 적어오지 않거나 교사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 결국 또래 학년의 어머니에게 의존해야 하고, 공과금은 고지서를 이해하는 일부터 공과금을 내는 곳에 이르기까지 모두 낯선 일이기 때문이다.⁴⁾ 이런 이유로 어머니들은 밥을 사거나 선물을 하는 등과 같은 선심전략을 쓰거나 혹은 교회에 참석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3) ‘구별 짓기’를 통한 ‘문화자본’의 확충

말레이시아에서 어머니들이 사람을 만나고, 만남을 철회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보다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이 낮은 어머니들과는 일종의 ‘구별짓기’ 전략을 활용한다. 만나도 도움이 안 되고, 알고 있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분 짓기는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적용된다.

4)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어와 영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고, 중국어도 널리 쓰이고 있지만, 공과금 고지서는 말레이어로 되어 있다. 공과금 고지서가 말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말레이어를 모르는 한국 어머니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많은 에피소드가 발생한다. 공과금 고지서 관련 에피소드는 말레이시아에서의 생활의 어려움의 한 단면을 나타낸다. 공과금은 대개 우체국에 내며, 수도세는 아파트 관리실에 6개월분을 따로 내도록 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조기 유학 생활은 말레이어와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어머니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말레이어 학습에 무관심한 편이다.

엄마들은 ‘모 아니면 도’라고 해요. 잘하는 애 엄마, 못하는 애 엄마, 엄마들이 같이 놓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룹이 짝 나뉘었어요. 큰 애는 모그룹, 작은 애는 도 그룹(A)

어머니들 간의 ‘구별짓기’는 한국에서와 유사한 상황으로 연출된다. 자녀의 성적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정보력 등에 따라 그룹에 속하거나 혹은 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처럼, 말레이시아에서도 어머니들의 정보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소외와 배제를 경험한다. 게다가 부모의 학력이나 한국내 거주지 또한 정보력과 ‘구별짓기’를 보다 정교화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동안 전업주부 삶을 모르는 면이 있어서 너무 휘둘려요. 집에 있는 엄마들이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서울 엄마들은 정보는 다 쪽쪽 빼가고 문어발식으로 정보망을 만들어놓고 해서 지방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서울 엄마들 무서워서 지방 엄마들은 집에만 있어요(A)

엄마 학력에 따라 아이들 교육문제를 대한테 차이가 있어요. 직장생활 경험자는 좀 더 경제적이고 무대포가 아니고, 가정주부는 본인이 직접 안하고 돈을 쓰고, 정보가 있을 때는 잘 대해주고(B).

이외에 자녀의 연령 또한 어머니들 간의, 소위 ‘구별짓기’(distinction)의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부르디외 2005 참조). 자녀의 연령은 어머니의 연령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교육관, 자녀관, 그리고 추구하는 정보 등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한국의 교육체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는 언제든지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심화된 영어 학습을 지향하지만,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한국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학업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또 다른 이동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고학년의 어머니들은 때로 가슴이 멍멍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4) 자녀의 인생설계와 자기 합리화

최근에는 한국 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 영어에 대한 열망, 그리고 자녀교육을 통한 부모의 열망의 재현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숨어 있는 조기교육의 종착점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기유학의 목적지인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Ivy League Universities)에서 점점 국내 대학으로 유턴(U-turn)하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⁵⁾ 외국 대학으로 입학했다가 국내 대학으로 편입을 하거나 혹은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보내고 국내 대학으로 수시 전형에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렇게 국내 대학으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늘어가는 것은 자녀의 성별과 학업, 외국대학으로 진학한 사례에 관한 정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 등의 원인 때문이다. 우선 자녀가 남자인 경우 군대문제와 사회생활 중 대학 동창의 중요성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부모들의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 그 대상이 되는 조기유학생들은 주로 중학교 이후에 조기유학을 떠났던 학생들이다. 즉, 국내 대학에 입학할 때 외국의 교육 경험을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생각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남들은 굳이 외국까지 나와서 왜 한국으로 대학을 가냐 취업도 외국이 빠르는데 하지만, 남자들은 인맥이 중요하니까 외국에서 자

5) 그러나 조기유학의 경우, (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특례 입학이 매우 어려우며, "영어특기자" 전형을 통해 일부만 지원가능하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생의 어머니들은 이런 사실들에 대한 구체적 정보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몇몇의 사례를 통해 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 실제 특례입학의 시기가 다가오면 그 애로점이 배가될 우려가 있다.

라도 다 한국으로 보내고(C).

아이들을 한국에서 끼고 있지 않으려고 이리로 데리고 나왔지만, 발판을 한국에서 밟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특례로 아이들을 많이 보내요. 12년은 꿈의 특례라고 하고, 여기선 주로 3년 특례를 활용해요. 우리 애도 특별전형 알아보고, 수시를 보게 할 생각이예요(F).

하지만, 이런 결정의 이면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적, 학비 등과 같은 또 다른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초기에 원했던 대학으로 진학하기에는 우선 성적이 잘 안 맞고, 조기유학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초기의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외국 대학의 학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

여기 와서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전에 지방 국립대에서 총장과 교무처장이 와서 지방 국립대의 입학과 유학 관련 각종 프로그램에 관한 특강을 했는데 엄마들 난리가 났었어요. 어느 대학이라도 나와서 정보를 쫓으면 좋겠어요. 영국, 캐나다 가면 남자애들은 군대 문제가 나빠지고 비용도 너무 해서(G).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나라로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말레이시아로 이주하는 기러기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싱가포르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에서 되돌아온 사람들로, 처음 조기유학을 떠날 때보다 경제 여건이 나빠져서 조기유학 대상이나 지역을 바꾼 경우이다. 이들은 이전에 머물렀던 나라의 교육과 말레이시아의 교육을 비교하며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합리화과정을 통해 말레이시아로의 이주는 자녀학업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다양한 과정과 방법 중 하나이며, 결과는 자녀의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에서 결정

된다고 믿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유학하든지, 싱가포르에서 하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서울의 리라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시골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결국 서울대 들어간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승리한 사람 아니냐(E).

하지만 고향의 어머니들은 심리·정서적 면에서는 한국에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 인터넷 전화로 통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전화를 걸어 남편과 통화하고 자녀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대면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은 어머니만큼 자녀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어머니들이 조기유학을 고집하였는데 특별히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조바심을 느낀다. 또 고향의 경우 자녀가 유급되거나 혹은 오 레벨(O-level)을 앞두고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올 경우 불안감과 중압감은 더욱 커진다. 외국대학교로의 진학을 위해서 조기유학을 감행했지만, 실상 외국에서 대학에 대한 진학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곧바로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과 같은 나라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은 성적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트위닝 제도(twinning system)를 통해 대학 간 교류가 원활하다 해도 말레이시아의 2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과 말레이시아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조기유학을 떠난 사람으로서의 면면을 살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실제 고향의 어머니들이 ‘신체화 증상’(psycho-somatic symptoms)을 보이는 경우도 나타난다.

여기 와서 가슴앓이도 생겼어요 여기서도 일인다역(一人多役) 이긴 마찬가지고, 그 스트레스 말도 안 통 하니 화도 못 내고 해서 그만 화병이 생겼어요 가슴 터놓고 말할 사람도 없고, 누굴 믿고

누굴 믿지 말아야 하나 무언가 말해도 들어줄까 하는 불안감, 사람들 곁으로 사귀니까 속은 외롭고(B).

엄마들은 자꾸 아프다고들 하죠.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D).

조기유학의 초기에는 대부분 자녀의 외국대학 입학, 어머니 본인의 영어 관련 자격증 취득, 어린 자녀의 국제중학교 입학 등과 같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하지만, 실제 외국생활을 하면서 이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는 어렵다. 얼마 전 조기유학 1세대의 성과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조선일보에서는 표제를 “절반의 성공”으로 제시했다(조선일보 2009년 6월 23일자 기사). 이것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측면에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했어도 청소년기 동안 자유롭고 다양한 사회를 경험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평가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이 학업성취였기 때문에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성공은 아니기에 절반의 성공이라 명명한 듯하다.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로의 조기유학도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 추동된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을 통해 그 성과가 드러나야 하지만, 실제 본인뿐 아니라 자녀도 외국의 학교생활이나 학업성취도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 조기유학기간 동안 전적인 책임을 담당했던 어머니로서는 자녀의 미래와 외부 시선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 때문에 편치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에서 자녀의 조기유

학을 위해 체류하고 있는 어머니 7명과 심층면접을 하여, 조기유학을 선택한 동기나 배경,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조기유학을 하면서 경험하는 딜레마 등에 대한 기술과 분석을 통해 주로 한국 어머니들의 자녀교육과 ‘어머니 노릇’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조기유학중인 어머니들은 대부분 남편의 권유와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 즉 자녀의 교육지원에 ‘올인’하고 싶은 욕망, 한국 안에서의 복잡한 관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 자녀의 학업성취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공부의 한을 풀고 싶은 욕구,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의 경우 자녀교육에 소홀한 부분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덜고 싶은 욕구 때문에 조기유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중인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업지원에 충실하고 정보를 충분히 수집, 관리하는 어머니를 ‘능력 있는 어머니’이자 ‘좋은 어머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학업 및 일상생활 시간을 관리하고, 자신의 생활을 철저히 자녀의 시간에 맞추며, 자녀의 학업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국이지만, 교회에 다니거나 성인반 학원에 다녀 학부모들과 연계를 맺고, 공부를 잘하는 어머니들과의 연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어머니들과는 본인뿐 아니라 자녀까지도 거리를 두는 ‘구별짓기’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기유학을 통해 기대했던 자녀의 학업성취 및 좋은 어머니, 능력 있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제가 때로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고, 사교육비나 대인관계로 인해 갈등에 놓이는 상황도 나타났다.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유학을 선택한 고학년의 어머니들은 입시정보의 부족과 정보접근의 어려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의 학업성적, 그리고 외국대학에 진학할 경우의 경제적 비

용 문제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거나 ‘신체화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자녀의 인맥형성이라는 이유로 한국 대학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면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유학하던 중,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어머니들 때문에 상실감과 불안감을 경험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즉 본인들이 희망했던 나라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떠나는 어머니들을 다시 확인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친밀감을 상실하고 남겨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떠날 사람, 즉 단기유학을 계획하는 사람들과는 처음부터 거리를 둬으로써 정을 주지 않고 다시 ‘구별짓기’를 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레이시아에서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분거생활 중인 한국 어머니들이 조기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부모의 영어 경험, 공부에 대한 한, 복잡한 관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데 따른 자녀양육 및 교육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죄책감과 미안함 이외에 자녀의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적합한 인재가 되도록 다양성을 경험하도록 하고자 하는 열망까지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이들 중에는 경제적 한계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로 떠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따라서 조기유학 중에도 끊임없이 호주, 뉴질랜드와 비교하지만, 외국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다른 아이보다 좀 더 많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조기유학을 선택한 점에서는 다른 나라를 선택한 여느 기러기 어머니들과 다르지 않다.

조기유학을 통해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위해 시간 관리와 정보망관리, 그리고 주변 인물에 대한 ‘구별짓기’ 전략을 시도하는 어머니 노릇은 자녀

를 중시하고 자녀의 인생을 마치 부모 자신의 인생과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자녀를 통해, 그리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이 곧 부모역할이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인생도 완성된다고 믿는 것이다. 자신이 못 다 이룬 꿈을 자녀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어머니들의 경우 이런 동일시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부정적인 현상으로서 ‘신체화 증상’이나 불안, 우울감,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은 자녀교육을 통한 어머니 자신의 정체성 형성이나 세칭 ‘길찾기’ 라는 선행연구(나운형 외 2007)의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경향을 보인다. 즉, 자녀교육을 통해 어머니 자신을 되돌아보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자녀를 통해 새롭게 시작해보고자 하는 일종의 투영이자 전폭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기대만큼 위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07년도에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조기유학을 보낼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본 조사에서는 그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반 이상이 한국에서 명문대에 진할 할 수 있어도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조기유학/해외유학은 공교육 실패의 부산물 아니라는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임천순·정일준 2007). 즉,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공교육, 사교육비 부담의 문제를 넘어 더 나은 교육기회와 경쟁력의 확보를 향한 부모들이 선택으로 그 공이 넘어간 것이다. 이것은 더 좋은 교육이 부모와 자녀세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켜줄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믿음은 사실 과정 중에 있으며,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확인되거나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일종의 기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과 기대에 머무는 것은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어머니 노릇’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기유학은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녀들이 보다 나은 미래에 보다 좋은 조건을 갖춘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믿는다. 영어만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다고해도 무난히 헤쳐 나가서, 소위 성공이나 출세, 또는 '먹고 사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 있다. 영어를 중심에 두고 철저히 기획되고 계산된 삶의 구도를 자녀들에게 사실상 주문, 나아가 강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녀와 함께 조기유학길에 오른 어머니들이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의 일상과 사교육 지원으로 인한 부담감,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머니들이 한국으로 되돌아가지 않거나 가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국에서 어머니들의 해줄 수 있는 것은 시간관리, 정보수집, '구별짓기', 그리고 자녀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전적으로 자녀만 생각하며 하루, 한 달, 1년을 보내주는 것, 다시 말해 자녀교육에 '올인'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머니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하나는, 한국의 주입식 교육과 입시지옥으로부터 자녀를 벗어나게 하고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조기유학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와 같은 여건이나 교육 방식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조기유학중인 자녀들은 여전히 세계를 향해 경쟁하기 보다는 한국인들끼리 경쟁하고 있고 또 조기유학 기간 또한 잠정적이며, 자녀들의 최종 경쟁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국에서의 공부 방식을 간과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식 공부와 외국의 국제학교 공부, 영어 학습이라는 무게를 안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머니들의 교육에 대한 주관적 경험 때문이다.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은 중년의 어머니들, 특히 취업경험을 했던 어머니들은 인생의 주기에 있어 장년기라는 샌드위치세대이기도 하지만, 시대적으로도 과도기에 있는 세대이다. 지금의 주부들보다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시대의 전업주부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자녀를 위한 치맛바람의 세대에 이어 현재의 교육받은 세대들은 자신의 교육적 성과에 따른 차별적 경험, 즉 사회적 성공에서의 성패의 차이를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은 학력 차별로 인해 불리했던 경험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경험한 교육의 노하우를 덧붙여 오히려 자녀교육의 양상을 더욱 정교화 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들을 향한 조부모세대의 교육지원에 대한 간접적 경험과 자신의 교육 자산,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사회적으로 발휘하기 어렵게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체계, 학벌위주의 사회에 대한 경험, 자녀와 부모를 동일시하는 현상 등이 중첩되어 자녀교육을 향한 ‘어머니 노릇’이라는 역할을 통해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것은 성공만 한다면 확고한 역할과 지위를 재생산하고 또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유인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어머니들의 자녀교육과 ‘어머니 노릇’에 대한 인식에는 그들의 사회를 향한, 특히 한국 사회를 향한 과시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기유학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은 일류대와 강남에 대한 열망을 따라잡을 수 있는 ‘상상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명예와 돈, 권력을 모두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서의 교육, 학벌이라는 세속적 욕망에 기인한 한국 어머니들의 과시욕은 자녀의 교육, 나아가 삶 자체에 투사되어 현실

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한국 어머니들의 욕망과 그 실현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조기유학을 경험한 학생들의 이후의 교육과 삶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조사를 요한다. 즉, 조기유학을 경험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삶을 꾸려가는지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어머니 역할, ‘어머니 노릇’, 조기유학, 조기유학의 동기와 사회적 배경, 교육 매니저로서의 어머니, 한국 어머니들, 말레이시아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6. 『2005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8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 초·중등교육 유학생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 김명혜. 2005. “어머니 노릇하기와 이동전화”,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신주. 199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중산층 학부모들의 의식구조”,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원. 2005. “조기유학 : 국민의식과 실태”, 한국교육개발원.
- 나윤경·태희원·장인지. 2007. “자녀 사교육을 통한 모성 구성과정:

- 평생학습자로서의 성인 여성에 대한 이해의 한 방식”, 『평생교육학연구』 13(4): 55-87.
- 박혜경. 2009.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 『한국여성학』 25(3): 5-33.
- 부르디외, 삐에르 지음. 최종철 옮김. 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상)』, 새물결.
- 오지수·이규민·강진구. 2009.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교육 실태와 자녀양육 스트레스”, 『아동교육』 18(1): 183-193.
- 윤택림. 2001. 『한국의 모성』, 서울: 미래인력연구원.
- 이두휴. 2008. “기러기 아빠의 교육적 희망과 갈등 연구”, 『교육문제연구』 32: 21-46.
- 이민경. 2007. “중산층 어머니들이 자녀교육 담론: 자녀교육 지원태도에 대한 의미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3): 159-181.
- 이정화. 2004. “고3 어머니의 모성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중산층 전업주부의 모성경험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연구』 17(2): 95-120.
- 이재경. 2004. “노동자계급 여성의 어머니 노릇(mothering)의 구성과 갈등: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2(1): 82-117.
- 이지연. 1994. “어머니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와 자녀교육 지원 활동에 관한 연구 : 서울 강남지역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천순·정일준. 2007. “조기유학조사2. 한국사회 성공등식의 변화, 분화하는 교육소비자의 선택”, 동아시아연구원.
- 조선닷컴. “2000년대 새 아이콘 조기유학 열풍”, (조선닷컴. 2010년 5월 2일자. <http://edu.chosun.com>)
- 조선일보. “조기유학 열풍 10년. 남긴 명암”, (조선일보. 2010년 5월

2일자)

조선일보. "[심층 리포트] [1] 조기유학 1세대-절반의 성공", (조선일보. 2009년 6월 23일자)

조은. 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경제와 사회』 64: 148-171.

천선영. 2003. "어머니 됨의 새로움: 열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pp. 69-94.

천세영·박소화. 2007. "초국가적 교육: post-nationality의 관점에서 본 조기유학", 『인문학연구』 74: 329-351.

추병식. 1999. "집단 순응과 대리 만족의 교육열", 『교육사회학연구』 9(1): 17-30.

한국일보. "야! 조기유학 문전성시", (한국일보. 2009년 4월 29일자 <http://hankooki.com>)

홍석준·성정현. 2009. "조기유학대상지로 동남아시아를 선택하는 한국인 부모들의 동기 및 사회문화적 배경: 말레이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4): 239-262.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Kim, Jeehun. 2010. "'Downed' and Stuck in Singapore: Lower/Middle Class South Korean Wild Geese(Kirogi) Children in Singapore,"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17: 271-311.

Park, So Jin. 2007. "Educational Manager Mothers: South Korea's Neoliberal Transformation," *Korea Journal* Autumn 2007: 186-213.

Park, So Jin, and Nancy Abelman. 2004. "Class and Cosmopolitanism: Mothers' Management of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77.4: 645-672.

46 동남아시아연구 21권 1호

(2010. 11. 30 투고; 2010. 12. 31 심사; 2011. 2. 15 게재확정)

<Abstract>

The Meanings and Perceptions of Child Education and Mother's Role for Children of Korean Mothers in Malaysia

Seok-Joon Hong

(Dept. of Cultural Anthropology, Mokpo National University)

Jung-Hyun Sung

(Dept. of Social Welfare, Hyups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and its meaning of child education and mother's role for children of Korean mothers for their children to study abroad in Malaysia. For this purpos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mothers and one grandmother. All participants were lived in Malaysia for at least 6 months above.

As a result, the most of recommenders of studying in Malaysia were fathers. And the purposes of studying in Malaysia were the improvement of their children's English learning skills and abilities, and not-good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They made a decision for their children to study in Malaysia in that it was good to study in Malaysia for early 'spec' management for their children. But in the case of Korean mothers, they had a diverse desires internally. For example, they had a desire to escape from the relationships with mother-in law or complicated social

relations of their family, kin, and neighbors in Korea.

In Malaysia, Korean mothers carried out their roles of children's time management, information network management and 'distinction' strategies to their friends and neighbors for their children to study well and up their achievements' levels. Lately, they had planning to develop for their children's long term life design and their choices of universities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various connections of school-ties and religion-ties in Malaysia.

Key Words: the perception of child education, mothers' role, 'eomeoni noreut'('어머니 노릇'), the early studying abroad, the motivations and social backgrounds of studying abroad, Korean mothers as educational manager, Korean mothers, Malaysia.